2026년 10월 30일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키움증권

AI 투자 논란 속 미국 성장세 지속

미국 3 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비 연율 3.4%로 2 분기(2.2%)보다 상승하며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0.82%p 에서 3.27%p 로 크게 확대되며 성장 가속을 주도했으며, 특히 재고투자 반등과 정보처리장비 중심의 설비투자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간소비 역시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며 성장에 2.52%p 기여했다. 특히 민간 국내구매자 최종판매 증가율이 2 분기 4.6%에서 3 분기 4.9%로 높아진 점은 미국 경제의 기조적인 내수 성장세가 여전히 양호함을 보여준다. 또한 장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0.74%p 에서 1.16%p 로 확대된 점은 재고투자 반등뿐 아니라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기업투자도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금리에 따른 자본비용 부담과 대규모 투자에 상응하는 수익 창출 여부를 중심으로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수익성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 인프라 투자가 단기간에 크게 확대된 만큼 향후 수익화 속도가 높아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련 기업의 밸류에이션 조정과 투자 증가세 둔화 가능성은 상존한다. 다만 AI 투자 확대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정보처리장비 등 다양한 산업의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의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거시경제 차원의 투자 수요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인프라 구축과 중장기 AI 수요 확대를 고려하면 수익성 검증 강화가 곧바로 투자 사이클의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중심으로 한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3 분기 정보처리장비 중심의 설비투자가 확대된 데 이어 애틀랜타 연은의 GDPNow 모델이 추정한 4 분기 성장률도 전기비 연율 3.2%로 3%를 상회하고 있다. 물론 3 분기 성장 가속에 재고투자 반등이 상당 부분 기여했고 GDPNow 역시 초기 추정치라는 점에서 향후 성장 속도가 조정될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경제지표를 고려하면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가 실물경제의 뚜렷한 성장 둔화로 연결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투자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더라도 견조한 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가 뒷받침된다면 미국 경제는 양호한 성장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겠지만, 이를 곧바로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나 투자 사이클 종료로 연결하기보다는 높아진 성장 기대와 투자 수익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성장의 핵심 변수는 AI 투자 규모 자체보다 투자 증가세의 지속 여부와 관련 수요가 실제 매출 및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될 전망이다. 고금리에 따른 자본비용 부담 속에서 기업별 현금창출력과 투자 여력에 따른 차별화는 불가피하겠으나, 이는 투자 사이클의 급격한 위축보다는 투자 확대 속도가 조절되고 투자 대상이 선별되는 과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미국 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성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되, 높아진 기대와 투자 확대 속도가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